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시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시련의 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무덤의 문은 열렸으며,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지난 날의 어두웠던 고통의 날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심해 있던 제자들을 찾아 산산히 부서진 그들의 마음을 잡아 주시면서 사랑으로 저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사흘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겸비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사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심으로 육체적 부활을 몸소 입증시키셨습니다. 회의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던 도마에게 책망보다는 이해를 시키려는 긍휼의 심정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배신에 대한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버림 받았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충현의 가족들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예식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인간의 무덤이 주님을 더 이상 가두어 놓을 수 없었듯이, 진리는 사장되는 법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를 하셨으므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 부활절에 이 중 윤 목사

오늘은 부활절

성찬식, 감사헌금, 음악예배

교만과 무지로 죄에 빠졌던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I, II, III, IV부 주일예배에서 90년도 제2차 성찬식을 거행한다.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고 부활절 감사헌금도 하게 된다.

한편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부활절 기념

행사를 갖는다. 고등부는 오늘 오후 1시에 소석관 507호에서 부활절을 개최하여 방송제, 찬양 및 연극을 발표하고, 청년 1부는 찬양을 통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며, 직장전도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초청전도집회를 열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에는 호산나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예배를 들릴 예정이다. 송숙자 집사가 지휘하고, 김은백 집사가 반주하는 “증인들의 고백”을 들으면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청년2부 특강 가져 주제 크리스찬의 결혼관



청년 2부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30분, “크리스찬의 결혼관”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현재 서울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며 우리 교회 상담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소영 집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 이번 특강에는 청년 2부 회원 70여 명과 교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남녀에 대한 이중성 윤리

육호기 서독선교사 소련 선교도 전개

서독 주제 육호기 선교사가 90년도 I/4분기 선교보고서를 보내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월 19일과 20일 서독 뷔츠부르크, 하나우, 비스바덴 교회가 연합으로 제 작수련회를 개최하여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충성을 다짐하였다.

2월 10일에는 육 선교사는 담임교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의 이스밀(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교우들의 상황을 잘 살펴 보았다.

또한 육 선교사는 소련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련을 방문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서신 왕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소련어 성경과 신앙 세적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며 크리스찬의 결혼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위임목사 동정

제 4 학기 목회자세미나 종강예배 설교 미국장로교회(PCA) 한인교역자 수양회 강의 한양 기독교실업인 선교회 초청 만찬회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는 4월 16일에, 지난 9주간 동안 전국 교역자들이 모여 “교회와 사회 봉사”를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제 4 학기 목회자 세미나의 종강예배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우

리 교회에서 열리는 미국 장로교회(PCA) 한인교역자 세미나에서 “저도자본”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19일 저녁 7시에는 한양 기독교실업인선교회(CBMC)에서 개최하는 전도초청만찬회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찬양으로 하나되게 한

제 4 회 교구찬양대회



우리 교회 교구위원회가 주관한 제 4 회 교구찬양대회가 지난 4월 7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구약시대에 288명의 의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본받아 충현의 모든 성도들도 찬송을 익숙하게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강조했다.

교구 식구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이 교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이 행사를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교구별로 그 동안 준비했던 찬송을 열심히 부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대회의 합창부문 대우상은 “천국에 가리”를 부른 제 1교구가 차지했고 제 11교구와 제 2교구가 소망상과 사랑상을 탔다. 또 찬양부문에서는 제 11교구가 믿음상을, 제 14교구가 소망상, 제 2교구가 사랑상을 차지하였다.

성경 강해

마귀의 정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신도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섰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요 8:41-50)

이 중 윤 목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둘째,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형제, 자매인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리는 것 같은데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지도자들은 매우 거친 말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약속의 자녀요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요 8:44)였습니다.

사단도 인격을 가진 존재

이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틀린,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신본주의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1.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에 의해 항상 도전을 받으며 살아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 다니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요 8:59).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무겁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뚜렷한 주관도 없이 그저 덩달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 하고 존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됩니다. 성도들은 호인이 아니라, 불의를 향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소리치시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호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마귀의 정체

첫째, 마귀와 사단의 차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느 곳에는 사단으로, 어느 곳에는 마귀로, 어느 곳에는 악마로 표현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야기 할 때에 이 세가지 말을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 중의 피수가 바로 사단입니다. 따라서 사단과 마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루시퍼가 자기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교만하여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사 14:12-14; 겔 28:15-17; 눅 10:18).

천사 루시퍼는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영물로서 굉장

한 세력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루시퍼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참람해졌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궤방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타락시켰으며, 하늘과 성산에서 추방당하고 마지막에는 흑암에 결박되고 땅에 떨어져 어둠과 세상의 왕이 되어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를 주관하는 존재로 떨어진 것입니다(히 2:14).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짐으로 사단이 되어 천사들을 꾀어 타락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사단의 정체

사단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또는 베리알, 악귀의 머리, 마귀의 대장, 악의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뱀, 옛뱀, 큰 용, 원수, 악한 자, 대적자, 고소자, 시험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 장이, 세상신,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사탄의 권세 잡은 자 등 별칭이 많습니다. 모두가 사단의 역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단은 공상이나 상상의 산물이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뿔이 나고 빨간 까운을 입고 흑가면을 쓴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저”라는 지시대명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그”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어 사단은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고후 2:11).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위선적이며, 중상과 모략을 일삼습니다.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 주신 주기도문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악한 자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 넣었습니다. 또한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 아벨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하였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사단이 먼저 하와에게 들어가서 ‘네가 이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믿고 행동한 하와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에게 들어가 땅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바칠 때에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나니아도 결국은 죽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여겼던 거짓말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단은 완전하며 아름다우며, 지혜가 충만합니다(겔 28:12).

주님 안에 거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악을 행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자칫하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사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한계상황에서 활동하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임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이므로 윤리적으로도 제한된 자입니다.

사단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과거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단은 우리들의 품성과 약점을 압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활동합니다(욥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단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모든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한번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베드로를 시험하고 아나니아에게 들어가고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고 바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이 신구약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20절에서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가졌을 천사를 대항한 작은 마귀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 악마들이 나타났을 뿐 사단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제한되어 있고 마귀들이 수없이 많아서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마귀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고전 10:13).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단의 길을 좇아가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자녀는 때로는 사람

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잠 14:12).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마 7:14).

사단은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약속을 하고 인간들이 납득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믿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게도 생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매력 있고 당장 따라 가면 좋을 것 같고 영광을 누릴 것 같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도 있고 인간적인 미래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혜는 영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사랑을 말하나 종국은 미움이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따라 평안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약속을 이루는 길, 영광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탐방 - 탁아부

어린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인식 심어 주는 곳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표어 아래 유순화 전도사님을 지도교역자로 모시고 부장 정운석 장로를 필두로 하여 교사 130여 명이 모여 매주일 봉사에 열중하는 곳이 바로 탁아부이다.

탁아부는 매주 II부 예배부터 IV부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우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있다. 유순화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집회를 갖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이야기로 엮은 비디오도 상영하고, 그림 그리기, 공작, 장난감 만들기 등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놀이 작업을 한다.

탁아부에서 봉사할 때 겪는 어려운 점은 탁아부를 찾는 어린이들의 연령층은 2세 미만부터 초등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인데 반하여 놀이시설은 너무도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어 연령에 따른 놀이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어 싫어하거나 잘 우는 등 성격이 까다로운 어린이들을 다뤄야 할 때는 정말 어쩔할 바를 모를 정도로 난처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울음을 따라 하고 “아멘”이라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탁아부를 거친 어린이들이 탁아부를 거치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예수님과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을 빨리 깨우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과잉보호로 인한 기우로 어린이들을 탁아부에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이 탁아부를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한다.

탁아부에 어린이들을 맡기지 않아 예배 시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을 탁아부에 맡겨줌으로써 부모님들은 보다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린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게 하고 선생님과의 접촉과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기도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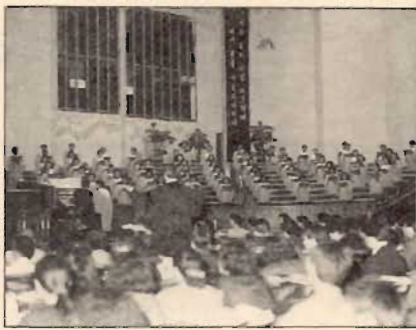
평생교육을 위한
충현살롬경로대학
90년도 제 1 학기 개강

변천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존경받는 기독교인의 노년

상을 정립하고 있는 충현 살롬경로대학이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갈릴리 홀에서 90학년도 제 1 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개강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297명의 신입생들에게 “내가 남길 인생 작품”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이 대학은 6월 21일까지 10주 동안 취미에 따라 서예부, 음악부, 문예부, 신앙부로 학급을 편성하여 노인들이 영육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유익하도록 신앙문제, 간증, 건강관리, 법률상식에 관한 교과과정과 수학여행, 견학, 산업시찰을 위한 야외학습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갈보리 언덕의 주님 생각하며
고난주간 음악예배 드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1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수요일 II부 예배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번 음악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 예

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흔히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는 입장이었던 성도들이 최시원 감독의 지휘에 따라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의 영광 뿐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나레이션으로 칸타타 갈보리 언덕은 시작되었다.

첫 종려주일, 첫 성목요일, 청 성금요일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나레이션과 찬양과 오르간 연주가 어울어진 이번 칸타타 갈보리 언덕은 강대상을 중심으로 양쪽에 앉은 180여 명의 할렐루야찬양대원의 찬양으로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나레이션을 한 김학진 목사는 특유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음악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드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

초등 3부

제1차 어린이 초청 집회

초등3부는 제1회 초청전도 집회를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갖는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주체성구로 삼고 “내 친구를 예수님께”라는 주제 아래 김연이 전도사의 지도로 집회가 진행된다. 이 전도 집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함과 초등3부 상반기 출석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운영 조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교회내내 책받침 2500매를 제작하여 초등3부 어린이가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학동국민학교와 논현국민학교를 중심으로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리고 매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교회 앞에서 선생님과

백정현 성도 공기정화기 기증

제8교구 성도 익명으로피아노 기증

제12교구의 백정현 성도가 지난 3월 18일자 주간충현에 실린 음향조정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공기정화기 4대를 교회에 기증했다.

한편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제3교구의 한 성도가 피아노 1대를 기증하였는데, 이 피아노는 앞으로 충현 기도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여러 학생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학부모들과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으며, 또 5월 13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갖는다.

선교하는
교회

이 영 세 장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인의 숫자보다도 선교와 전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선교는 왜 하여야 하는가.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나도 너희를 보내리라”(요 6:21)고 하셨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선교를 통하여 이루시고 교자하셨는데 근래에는 선교의 참 뜻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감리교와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전도회를 선교회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수 많은 선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선교의 개념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일

부 교회는 선교라는 미명 아래 급진적인 사회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민중신학에서는 참된 의미의 복음 전파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성경을 왜곡 해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선교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상을 살펴보면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회에 대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사회 봉사가 앞서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

선교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외국이나 문화권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복음)을 전함으로써, 개개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 세워지도록 하여 기독교문화를 심어주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시이며, 파송된 선교사를 물질적으로나 기도로써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들의 정성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충현교회가 선교사역을 시작한 지 22년, 또 선교사를 파송한 지 20년에 이르렀고

현재 충현교회가 파송한 22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폐쇄된 공간 세계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했으며, 동구라파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정치, 경제, 사회 뿐 아니라, 억압된 인권의 회복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뜨겁게 일으키게 하였고, 북한에 교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중국의 11억에 달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이미 발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충현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통하여 간곡하게 부르짖었던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에서 충현교회와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뜨거운 기도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는 생동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다음호 세기동은 하대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며 자녀 삼 남매를 귀엽게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른여덟 살에 무서운 장티프스에 걸려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공기 좋은 구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이 허무했고,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을 생각하면 부모, 남편, 자녀와 영원히 이별하는 고통이 나를 항상 괴롭게 했습니다.

이सान 그 해 봄, 메말랐던 나무에 새순이 돋아난 것을 보면서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누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죽음을 주었는지 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에 사시던 충현교회의 이명자 집사님이 저에게 교회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그 집사님을 헐뜯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어낸 우스운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집사님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드디어는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가보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던 저는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향을 피워 놓듯이 교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유 호 순 집사

에서도 예배 드릴때 그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차만 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죄인인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통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너무 감사하여 기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의 친척 가운데 집사가 되신 분이 다섯 분이며 제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두 분이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은 몇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 송현숙을 친구 동생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절에 다니며 5년 동안 불공을 드리 왔다고 하였습니다. 생사화복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저는 그 친구를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내어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들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 친구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 살 정도인데도 목사님이 심방을 오시면 손을 끌어다가 자기들 머리에 얹으며 축복기도를 해 달라고 한다며 수원에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을 당시만 해도 축하해 주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고 남편은 지나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일시에 부름을 받았으니 기도하며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되면 교회일을 하셔야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니 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은 가깝고 할 일은 많은데 어떻게 적당한 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충현교회를

보라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너의 말대로 하면 종긴 하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고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용기를 얻어 오늘날까지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느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 라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하늘의 천사도 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축복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많았던 40년의 광야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기분입니다. '빈핍한 자를 거름터미에서 드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주일학교 교사와 루디아 협의회 회장과 협력구역장 일을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열려하며 고민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전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헌금

충현복지마을, 사랑의 집, 세계선교원 건립을 위하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명월, 박해권, 이득해, 조창선, 양순옥, 김현주, 김경래, 지상연, 강희창, 김국자, 김말선, 신부근, 이순자, 방애주, 이근덕, 김기정, 최선자, 마도원, 김정우, 최시영, 이인준, 박원화, 안 성, 박영숙, 안나연, 김충선, 한송규, 김순실, 강정옥, 유순애, 이창업, 김용선, 김경애, 윤병연, 김태선, 소재철, 이태옥, 손경순, 김규태, 전정우,

장석두, 백전순, 윤채연, 남해숙, 배기영, 최영자, 김향권, 이영숙, 강정옥, 어은애, 김정업, 황명하, 전철근, 이점숙, 강희창, 심귀례, 김옥동, 한정희, 장요성, 이갑재, 한숙원, 박현주, 김종성, 박성순, 이인상, 박명석, 김유찬, 윤용성, 김종자, 박준원, 나희주, 고 김한홍, 초등5부, 초등6부, 한 나협의회, 에스더2 지회, 에스더11지회 (1월)

주장애, 김충선, 서금순, 지상연, 유영자, 조창선, 장요성, 강정옥, 홍순섭, 김준남, 김은숙, 이창업, 김용섭, 김현주, 이영식, 김미란, 김말선, 박해권, 이해득, 김 윤, 이태순, 최병섭, 유순녀, 조성훈, 이희자, 임옥문, 이공남, 양근신, 이명균, 홍성옥, 전순희, 이슬기, 김영임, 이상순, 최시영,

이경옥, 김희선, 박명숙, 박성희, 전일항, 양순덕, 이인출, 박원화, 왕진숙, 이근담, 윤성철, 손 철, 최복선, 한명순, 김수일, 김애영, 윤채현, 안중탁, 성명선, 소재철, 심귀례, 황명하, 최태희, 최난수, 임태주, 이옥분, 김익환, 임태임, 김정업, 윤혜경, 박현주, 김종성, 이영균, 이상영, 안숙자, 이희자, 김경래, 남해숙, 김정환, 김분식, 김동안, 최선자, 마도원, 이갑재, 한숙원, 김종열, 강희창, 권영자, 성점요, 진경애, 김순영, 정진성, 박성순, 박기영, 조영철, 김수진, 안석현, 김승옥, 안지영, 안지원, 최지윤, 김경희, 김종운, 초등5부, 에스더8지회, 무명 2 (2월)

김정업, 이인준, 강정옥, 조창선, 김현주, 김충선, 신동수, 임현숙, 김윤섭, 박명석,

김은숙, 이인상, 윤병인, 이영식, 이슬기, 이경옥, 신표근, 박해권, 이득해, 고임생, 한정희, 이창업, 김용섭, 윤여전, 이영균, 양근식, 이명준, 최순덕, 백원옥, 조순덕, 박원화, 최시영, 손경순, 전일학, 유영자, 박준원, 김명심, 윤채현, 김경애, 김말선, 안 성, 장요성, 안순이, 강정선, 윤옥녀, 소재철, 김화순, 박윤래, 손 철, 김달현, 유순녀, 정문석, 한춘홍, 변성옥, 조성훈, 권영자, 김문섭, 홍경숙, 함순려, 박상천, 최복선, 황명하, 최금중, 김경희, 주장애, 마도원, 최선자, 안중탁, 이상연, 이점숙, 박준원, 남해숙, 김경래, 강희창, 김은태, 한정희, 심귀례, 주수현, 백기영, 이현주, 조성훈, 정갑생, 초등5부, 에스더8지회, 무명 3 (3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6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부활

성경 : 고전 5:12~20

요절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찬송 : 151, 157

제38문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부활할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하심과 죄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다(요 5:28, 29; 살전 4:17, 18).

설 명

부활이란 죽은 자의 몸과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무덤 속에 있던 썩어진 육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교훈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 구원까지도 포함되는 구원입니다. 이 영광스런 마지막 날에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얻을 때, 비로소 전인적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 문

1. 신자의 부활 후 특색은 무엇입니까(고전 15)?
2. 두 종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요 5:29)?
3.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가 누릴 은총은 무엇입니까(요일 3:2, 3)?